

## 보성전문학교 도서관(1935~37), 그 건축적 연원을 찾아서

김현섭

고려대학교에서 건축역사를 가르치는 필자는 본교 건축의 풍부한 건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틈틈이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몇몇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고, 모두를 아울러 『고려대학교의 건축』(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단행본의 통사적 흐름상 일부 내용은 크게 축약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대 석탑의 디자인 연원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아이러니다. 고려대학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안암동의 석탑이기 때문이고, 현재의 캠퍼스도 1930년대 지어진 본관과 도서관의 디자인 모티브를 강력한 건축적 준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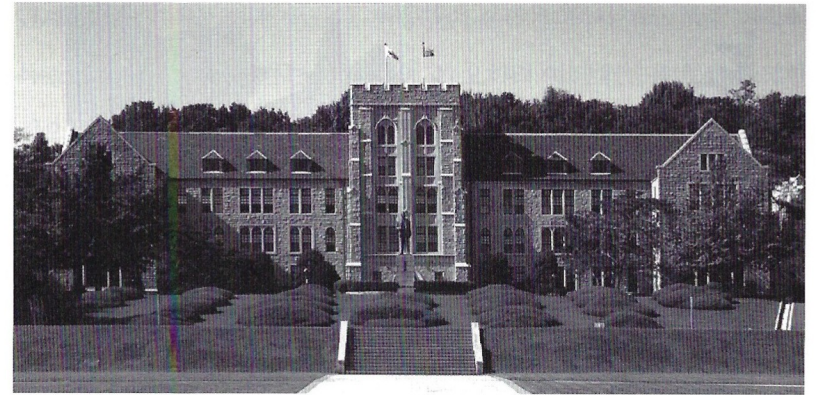
1932년 인촌 김성수 선생의 보성전문학교 인수 및 이에 따른 1934년 안암동 시대의 개막, 이것이 고려대학교 12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도약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때까지 열두 해 동안 송현동의 구 천도교본부를 근거지로 전개하던 보성전문의 교육활동과 민족운동은 이제 안암동에서 더욱 단단한 물리적 기반에 뿌리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인촌은 어떤 경위로 안암동의 첫 건물들에 석조-고딕 양식을 도입했을까? 특히 이와 관련해 거론되던 듀크대학교라는 해외의 참조 모델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필자가 2012년 한국건축역사학회에 발표한 「보성전문학교 도서관(1935~37)의 건축적 연원 탐구」라는 논고에서 천착한 주제다. 『고려대학교의 건축』이 그 핵심 골자를 담긴 했지만 내용 전반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또한 아카데미아의 글인지라 더 많은 독자와 소통되지 못했던 듯싶다. 새로운 장을 통해 다시 볼 이유다. 이 논고는 10여 년 전의 것이지만 골자와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과 책의 체제에 맞게 텍스트와 도판에 일부 가감이 있음을 밝힌다.

## 1. 들어가며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설립된 이래 여러 건물들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나 1932년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1891~1955)가 학교를 인수한 이후 현재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터를 잡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물리적 기틀을 마련한다. 주지하듯, 인촌은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건축기수로 일하고 있던 박동진(朴東鎭, 1899~1980)을<sup>1</sup> 고용하여 본관(1933~34)을 시작으로 도서관(1935~37), 서관(1954~61), 강당(1956~57), 여학생회관(1958), 교양관(1959~60), 이공대학(1957~64) 등 여러 건물들을 신축했다. 보성전문이 1946년 고려대학교로 승격됐으므로, 이 가운데 본관과 도서관만이 보성전문 시기의 건축물이라 하겠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됐다는 점, 민족사학을 표방했던 보성전문-고려대학교의 가장 중추적 건물이라는 점, 석조고딕 모티브의 유려한 의장요소를 가진 점 등 여러 역사적 의미가 있기에 1981년 각각 사적 285호와 286호로 지정된다.

특히 두 건물의 석조고딕 모티브는 이후 보성전문과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인자로 작동한다. 도서관과 대칭을 이루는 서관을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는 대개의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두 건물에서 시작된 석조고딕과의 관계성을 유지했고, 그것이 바로 민족의 사학으로 역할해온 고려대학교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두 건물이 어떤 연유로 그러한 양식을 채택했는지, 그 경위는 어떠

1 건축가 박동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이영범, 「민족정신의 건축적 구현: 건축가 박동진의 사상과 작품」, 『건축과 환경』 65호(1990.1), pp.149-157; 윤인석, 「한국의 건축가: 박동진」, 『건축사』 329호(1996.9), pp.80-84; 안창모, 『建築家 朴東鎭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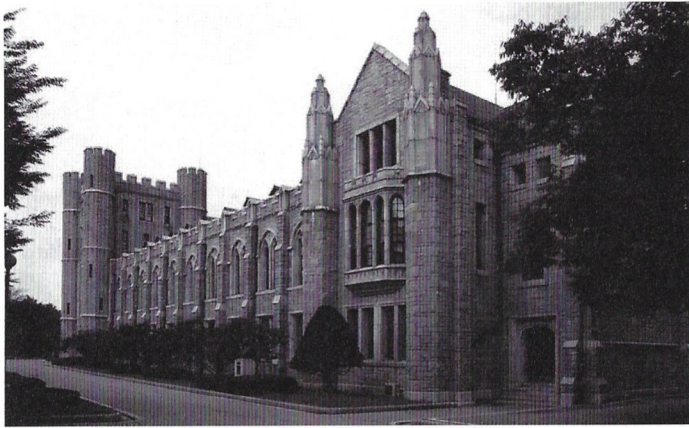


〔그림 1〕 현재의 고려대학교 본관(보성전문 안암동 신교사), 사적 285호 (필자 촬영)

했는지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더구나 박길룡(朴吉龍, 1898~1943)과 더불어 대표적인 1세대 한국인 건축가로 불리는 박동진의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그 관심의 정도는 심화됐다고 하겠다. 이런 연유로 건축계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건축가 박동진의 ‘주체적’ 작품으로서의 보성전문 건축물을 탐구하기도 했다.<sup>2</sup> 그러나 본고는 지금까지 진행된 보성전문 본관과 도서관의 연원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실증적 고찰을 배제했다고 규정한다. 무엇보다도 미국 듀크대학교와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그러하다.

우선 우리는 본관과 도서관의 건축적 연원을 분리해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이른 문헌으로서 이후 출판물의 참고서가 된, 고려대학교의 『60년지』(1965)와 『인촌 김성수전』(1976)을 따라보자. 첫째, 인촌은 보성전문 인수 전의 구미(歐美) 순방에서 그곳의 우수 대학을 방문했고, 그때

2 특히 안창모(1997)를 보시오.



[그림 2] 현재의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대학원) (보성전문 도서관),  
사적 286호 (필자 촬영)

촬영했던 사진은 박동진의 본관 설계에 참조됐다. 둘째, 당시 보성전문 교수였던 오천석의 듀크대학교 앨범에 도서관 사진이 있었고, 이것이 보성전문 도서관에 적용됐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이후의 문헌에 계속 인용되는 가운데, 개별적 서술이 종종 혼합되며 부정확한 언설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나중 문헌의 모호한 바를 더 명확히 하고, 위 두 저서의 내용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 인촌이 촬영했던 유럽과 미국의 대학 사진이나 여행 중의 일기장 등이 남아 있다면 보성전문 건물들과의, 특히 본관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러한 자료의 현존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sup>4</sup>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본관 건축에 대한 직접적 영향

3 高麗大學校六十年誌編纂委員會, 『六十年誌』(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65), pp.192 & 215; 仁村紀念會, 『仁村 金性洙傳』(서울: 財團法人仁村紀念會, 1976), pp.321, 334, 346 & 367.

4 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촌기념회,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중앙고등학교, 인문학박물관, 동아일보사 등을 수소문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현희는 인촌이

관계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동진이 본관 설계 시 어느 특정 대학의 특정 건물을 모델로 했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여러 건물을 두루 참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도서관의 경우는 듀크대학교 도서관이라는 구체적 건물이 모델로 거론된다. 그렇다면 듀크대 도서관은 어떤 건물인지 확인해야 하고, 두 학교 도서관이 실제 그러한 영향 관계에 있는지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고는 보성전문학교 도서관의 건축적 연원이 되는 듀크대학교 건물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글은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 된 듀크대 건물이 바로 현재의 퍼킨스 도서관(1930)이며, 주변의 다른 건물들 역시 전체 구성과 디테일을 위해 참조됐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양산돼온 보성전문과 듀크대학교의 관계에 대한 텍스트를 고찰하여 몇몇 오류를 지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과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오천석의 글을 발굴하여, 그가 가졌다는 듀크대 ‘앨범’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에는 듀크대학교로의 답사 및 아카이브 자료조사가 수반됐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초점이 보성전문 도서관에 있으나 본관에 대한 서술 역시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도서관 건축이 본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본관의 연원에 대한 풍문 역시 듀크대학교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행문이나 회고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음을 유감스러워 한다. 이현희, 『대한민국 부통령 인촌 김성수 연구』(여주: 나남, 2009), p.234. 다만 『동아일보』가 1932년 3월, 「구미 저명학부」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미국의 예일, 하버드, 컬럼비아대학교를 차례로 소개하며 사진 하나씩을 게재한 바 있는데(4, 5, 12월), 이것이 인촌의 것이라면 그의 경험의 일말을 조금은 더 가까이 감지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 게재된 사진 중에서는 예일대학교 건물이 고딕양식이다. 「歐米著名學府(一): 米國三大大學之一 예일大學」, 『東亞日報』 4023號(1932.3.4).

## 2. 보성전문의 안암동 시대 개막과 고딕 석탑의 발흥

민족사학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보성전문학교의 시작은 물리적 기반부터가 매우 초라했다. 수송동의 옛 러시아어학교가 사용했던 한옥건물에서 1905년 개교한 이래, 재정적 압박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 종로구 일대의 몇몇 목조교사와 벽돌조교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5</sup> 보성전문이 1932년 인촌에게 인수되어 1934년 안암동 신교사로 이주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인촌은 보성전문 인수 직전인 1929년 12월부터 1931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유럽과 미국을 순방했는데, 이미 전문학교(궁극적으로는 민립대학) 설립을 염두에 두고 각 나라의 주요 대학들, 예컨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소르본,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프라하, 컬럼비아, 하버드, 예일 등을 시찰했다는 것이다.<sup>6</sup>

보성전문 인수 후, 현 안암동 캠퍼스 자리에 약 62,000여 평의 땅을 매입하고 박동진에게 설계를 의뢰한 인촌은<sup>7</sup> 계동 자택의 신관 2층에 설계실을 차리고 박동진을 기거하게 했다. 그들은 두 달여를 함께 숙식하며 설계에 매진했고, 인촌이 각국 대학에서 찍어온 환등사진을 보며 자주 토론했

5 이는 기독교계의 연희전문학교가 일찌감치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스텀스관(1920), 아펜젤러관(1922), 언더우드관(1925)을 세웠던 사실, 관학으로서의 경성제국대학교가 1931년 (박길룡이 설계에 참여한) 본관을 준공한 사실 등과 비교되어 보성전문의 분발을 촉구했다고 하겠다.

6 『仁村 金性洙傳』, p.321.

7 인촌은 보성전문의 설계를 민족의 기술자에게 맡겨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박동진은 당시 몇 안 되던 조선인 건축가였다. 박동진의 회고에 의하면, 그들의 만남은 인촌이 구미시찰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그리고 학교의 터를 물색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朴東鎮, 「Granite의 辯: 仁村 金性洙 先生과 나」, 『高大新聞』 70호 (1955.5.16).

다고 한다. 인촌은 여행에서 돌아올 때 16mm 무비카메라와 교육시설을 찍은 필름, 환등기 등을 지참한 바 있다.<sup>8</sup> 이런 과정을 통해 건립된 것이 안암동 신교사, 즉 본관이며, 같은 흐름 가운데 도서관이 건축된다. 이번 장에서는 본관과 도서관의 건축적 개략과 역사적 위치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도서관의 연원 탐구를 위한 배경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림 3] 보성전문의 송현동 교사, 1921~34 (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 2.1. 보성전문 본관(안암동 신교사, 1933.9~1934.9)

안암동에 터 잡은 보성전문 본관은 다락층 포함 지상 4층(중앙탑부 6층)에 연면적이 약 975평이었다. 시공은 최저가 입찰자인 일본인 후지타 고오기(藤田幸二郎)가 맡았다. 최대 550명의 재학생을 가정하고 강의실, 교수실, 회의실, 강당 등을 계획한 이 건물은 규모 면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8 『仁村 金性洙傳』, p.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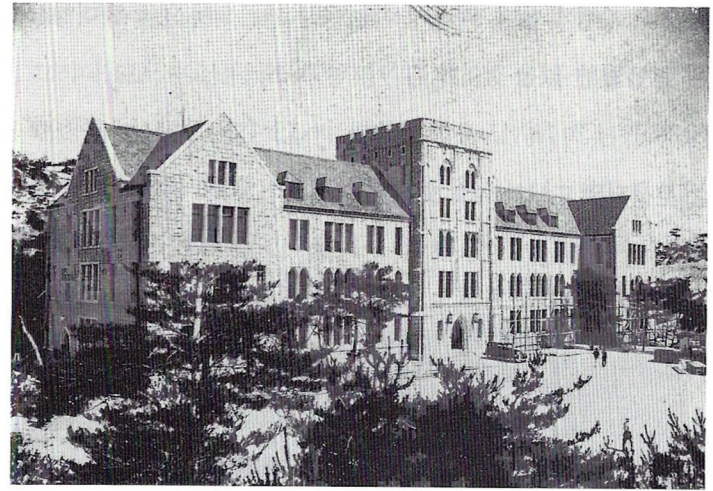
그 못지않게 '석조고딕'을 양식으로 차용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물론 본관을 비롯한 보성전문 의 '석조전'들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순수한 석조라 말할 수 없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철근콘크리트와 무근콘크리트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자중을 견딜만한 화강암 석괴가 외장 되었기 때문에, 보성전문 본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화강암의 복합체라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석조고딕의 모티브다.

안암동 신교사를 석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인촌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세계의 우수 대학에 못지않은 학교를 원했고, 그 대학들에서처럼 영구적 재료인 돌을 사용하길 바랐던 것이다. 게다가 우리에게 풍부한 화강암은 지역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본 목조건축의 유약성과 대비되는 강인한 면모를 지녔다.<sup>10</sup> 공사에 사용된 화강암은 근처 종암동의 채석장에서 온 것이라 한다. 한편, 고딕양식을 최종 선택한 것은 건축가 박동진의 몫이었던 것 같은데, 양식에 대한 문제는 재료 선택에 종속된 결정이었다. 인촌이 방문한 대학들에는 유서 깊은 고딕 건축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학의 시작은 중세 고딕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거기서 학문의 신성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 중 영국에서 1년을 머물렀던 인촌에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고딕 건물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한다.<sup>11</sup>

9 당시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에서 발행하던 건축전문지 『朝鮮と建築』의 「普成專門學校新築工事設計概要」(1935.9)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공사 중에 찍은 사진도 그 사실을 일부 확인해 준다.

10 朴東鎮, 「Granite의 辯」.

11 高麗大學校70年誌編纂室, 『高麗大學校70年誌』(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75),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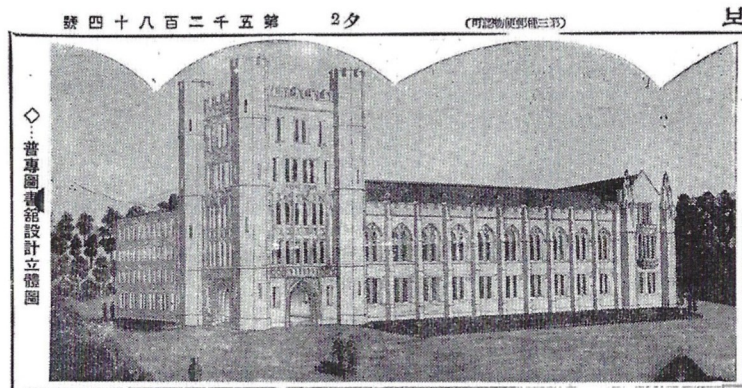


[그림 4] 보성전문 본관, 1934년 완공 무렵의 모습  
(출처: 『朝鮮と建築』 1935.9)

이 건물을 고딕양식으로 분류하게 만드는 중요한 건축 요소로는, 무엇보다 1층 출입구와 정면의 창호에 사용된 뾰족 아치(pointed arch) 개구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중앙 탑부 네 모서리의 부축벽(flat buttress)이 상부로 갈수록 얇아지는 점이나 탑 최상부의 요철 모양 여장(女牆) 역시 중세의 건축을 연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전문 본관은 13세기 유럽의 성기 고딕양식(High Gothic Style)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건축의 전형적 특징으로는 간주되는 리브볼트(rib-vault)나 플라잉버트레스(flying buttress)와 같은 요소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강조되던 수직성 역시 크게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면은 납작한 H-자 형태의 엄격한 좌우 대칭으로 고전주의적 품위마저도 머금는다. 입면 역시 중앙탑을 중심으로 대칭적인데, 규모에 비해 전체적 구성이 무척 단순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히려 이 건물을 르네상스로 전이되기 직전 영국 후기 고딕시기의 저

택 건축물과 가깝게 한다. 따라서 이는 종종 거론되듯 영국 튜더양식(Tudor Style)과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2.2. 보성전문 도서관(1935.6~1937.9)



[그림 5] 보성전문 도서관 투시도, 혹은 '설계입체도'  
(출처: 『東亞日報』, 1935.8.17)

보성전문 도서관 건축은 1935년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본관 공사 전부터 이미 계획됐고, 이를 위해 국내외의 거족적 기부금이 조성됐다. 1935년 6월 도서관 공사가 시작되자 『동아일보』(1935.8.17)는 얼마 후 「우리가 쌓는 金字塔: 大普專의 圖書館」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며, 조감도를 게재하기도 한다(그림 5). 도서관 대지는 본관으로부터 우측편(동북쪽) 언덕의 터를 닦아 마련했다. 설계와 시공은 각각 박동진과 후지타 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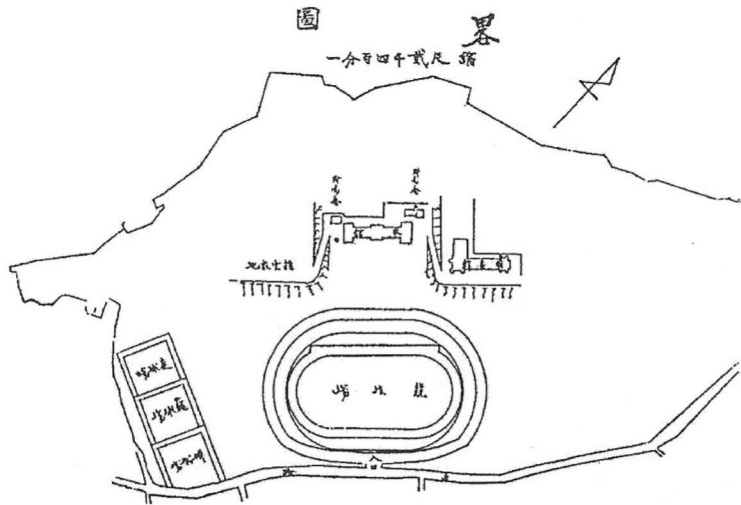
12 이정덕은 이를 단편적으로 제기한 바 있는데(『建築의 特性』, & 「발전 속의 조화를 갖춘 캠퍼스로」, 『高大新聞』, 1977.11.3 & 1991.3.11), 안창모(1997, pp.150-153)는 4점 아치, 사각형 창호, 베이윈도우를 들며 이에 대해 자세히 논증한다. 그러나 결론에 와서 박동진의 석조건축을 '영국 낭만주의 건축 시기의 빅토리아 고딕'으로 급히 정의한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크다.

치(藤田源市)가<sup>13</sup> 맡았는데, 건물의 재료, 양식, 구조는 본관을 그대로 계승한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의 L-자형 평면은 납작한 H-자 평면을 갖는 본관과 큰 대비를 이룬다. 여기서 L-자 평면의 짧은 날개축이 본관 쪽을 향하며, 직교부 모서리의 5층탑과 함께 무게중심을 잡는다. 전체 배치를 보면 본관과 도서관은 일종의 직교체계 하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애초 강당 부지로 설정된 본관 좌측편(남서쪽)은 아직 빈 상태로 남아있다(그림 6). 1961년에 도서관 대응물로서 서관이 완성된 후에야 전체 구성에 균형이 잡힌다.

도서관은 짧은 날개축이 4층, 긴 날개축이 3층, 모서리의 탑이 5층이며, 건축면적 298평, 연면적 873평에 교수연구실, 사무실, 열람실, 자료실, 서고(書庫) 등을 갖는다. 특히 열람실동이라 볼 수 있는 긴 날개축 2층에는 대열람실이 마련됐다. 높은 천정고에 우아한 뽕족아치 창을 가진 이 공간은 전교생의 반인 25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책상과 의자 등 모든 시설이 최고 수준이었다.<sup>14</sup> 도서관은 착공 2년여가 지난 1937년 9월 준공된다. 그리고 훗날(1957~58) 짧은 날개축(서고동) 후면이 뒤편으로 확장되고, 열람실동 3층에 교수실이 증축됐으며, 지금은 중앙도서관 구관 겸 대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13 후지타 겐이치는 후지타 고오기로의 대리인으로 본관 공사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둘은 부자(父子)가 아닐까 추측된다. 「普成專門學校新築工事設計概要」, 『朝鮮と建築』 14 輯 9号(1935.9), pp.20-23; 「우리가 쌓는 金字塔: 大普專의 圖書館」, 『東亞日報』 5284號(1935.8.17).

14 보성전문 본관과 도서관은 규모나 시설이 당시 최고 수준이었고, 경성제대를 제외하고는 국내 최초로 1교수 1연구실 제도를 실시하여, 일본의 사립대학도 이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高麗大學校 70年誌』, p.163.



[그림 6] 보성전문 안암동 캠퍼스 배치도, 혹은 '약도'  
(출처: 『普成專門學校一覽』,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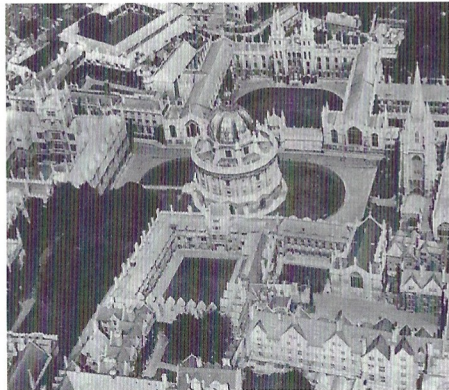
[그림 7] 1937년 도서관 완공 전의 보성전문 캠퍼스  
(출처: 『普成專門學校一覽』,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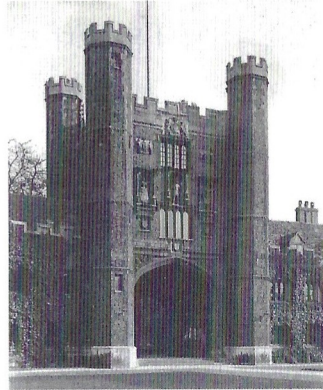
[그림 8] 도서관 2층의 대열람실 (출처: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 건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모서리의 5층탑인데, 이곳의 출입문은 양쪽의 아치 개구부 모두에서 같은 각도인 45°를 이룬다. 탑의 평면은 자체만으로 완결된 정사각형이며, 네 모서리에는 팔각평면의 튜렛(turret)이 돌출되어 탑의 몸체보다 조금 위로 솟아 있다. 튜렛은 본관의 중앙탑 모서리가 부축벽으로 마무리된 것보다 더 적극적인 마감 수법이라 하겠는데, 탑 본체의 상부와 함께 여장으로 처리되어 캠퍼스 스카이라인에 중요한 고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한편, 긴 날개측 끝의 박공면으로 오면 5층 탑의 튜렛이 변형된 모습으로 출현한다. 여기서는 그 상부가 소침탑(小尖塔, pinnacle)으로 마감되기 때문인데, 고딕건축의 또 다른 어휘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 밖에도 도서관은 출입구와 창 프레임의 반복되는 뾰족아치, 긴 날개측의 부축벽, 2층 대열람실 창의 꽃잎무늬 창틀(foiled tracery) 등과 같은 여러 고딕적 요소를 갖는다. 또한 박공면 2층에 돌출된 오리얼창(oriel window) 역시 중요한 고딕건축의 요소인데, 그 자체도 너비가 다른 뾰족아치를 포함하며 상부는 여장으로 처리됐다.

이 같은 도서관의 건축적 특성은 본관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영국 튜더양식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보성전문의 고딕 석탑이 16~17세기 영국의 건축흐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중반 이래 영미권에서, 특히 미국에서 흥했던 이른바 ‘대학 고딕양식(Collegiate Gothic Style)’이다.<sup>15</sup> 이것은 고딕부흥식(Gothic Revival)이라는 큰 흐름의 후미에 속했던 경향으로서 펜실베이니아, 예일, 시카고, 프린스턴, 듀크 등 당시의 많은 대학들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모델을 하여 채용했던 스타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보성전문 본관과 도서관의 고딕은 영국 튜더양식에 바탕을 뒀던 ‘대학 고딕’을 채용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고딕부흥식의 한 분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1930년경의 옥스퍼드대학교  
(출처: Christopher Hussey, *Oxford: The Colleges and University Buildings*, Country Life, London, 1932)



[그림 10] 케임브리지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출처: Arthur Oswald, *Cambridge: Its Colleges and University Buildings*, Country Life, London, 1932)

15 Michael Lewis, *The Gothic Revival* (London: Thames & Hudson, 2002), p.185; John M. Bryan, *Duke University: An Architectural Tou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p.7.

### 3. 보성전문 도서관의 연원에 대한 풍문과 정설

보전 건설에 인촌이 이상적 모델로 삼은 대학은 주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이었고, 안암동 교사(현 본관)는 미국의 듀크대학 건물을 참고했다고 한다. [...] 도서관 설계는 [...] 미국의 듀크대학(Duke University)에 유학하였던 보전 교수 오천석이 그의 앨범에서 듀크 대학 도서관 건물을 보고 참고하였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100년사』, 2008, pp.388 & 428; 밑줄 필자 강조)

2장을 통해 보성전문 본관과 도서관의 건축적 이해를 얻었다면, 이제 그 건축적 연원을 추적할 차례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고려대학교 100년사』마저도 본관과 도서관 모두가 듀크대학교 건물을 참고했다고 다소 혼동되게 기술한다. 물론 본관이 듀크의 건물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연원과 교차 인용되는 가운데 발생한 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의 문헌을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 3.1. 본관 및 도서관의 연원과 관련된 문헌검토

이 건물들의 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도서가 존재하며, 그 가운데 고려대학교 역사 관련 문헌과 건축학계 연구문헌을 주목할 만하다. 각각의 대표적 문헌을 뽑아보면 아래와 같다.<sup>16</sup>

16 그밖에도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고려대학의 사람들(3): 김성수』(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대한민국 부통령 인촌 김성수 연구』(이현희, 2009) 등의 문헌도 있으나 본고의 주제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역사서를 제가공한 수준에 그친다. 『인촌 김성수의 민족교육사업』(VOD; 고려대학교 방송국, 1992)의 경우는 안호상 전 교수가 인터뷰에서 옥스퍼드를 본관의 모델이라 단언하나, 학문적 엄밀성과는 거리가 있다.

### 고려대학교 역사 관련 문헌

- ① 『60년지』, 고려대학교, 1965
- ② 『고려대학교 70년지』, 고려대학교, 1975
- ③ 『인촌 김성수전』, 인촌기념회, 1976
- ④ 『고려대학교 90년지』, 고려대학교, 1995
- ⑤ 『고려대학교 100년사』, 고려대학교, 2008

### 건축학계 연구문헌

- ① 『한국고등교육시설에 있어서 공간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한, 서울대 박사논문, 1991
- ② 『건축가 박동진에 관한 연구』, 안창모,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③ 『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0

전술한 『100년사』 서술의 혼동이 발생한 지점을 찾기 위해 고려대학교 역사서를 추적한 결과, 『90년지』와 『70년지』가 『100년사』의 서술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 『60년지』의 경우는 본관과 듀크대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발견했다. 즉, 『70년지』부터 듀크대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본관의 모델로도 확대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70년지』와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인촌 김성수전』은 그 같은 혼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인촌의 여행에 대해 훨씬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그의 듀크대학교 방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해당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본관] 設計는 [···] 앞서 歐美各國의 大學의 建築을 본 眼目으로서 첫째 條件이 石造建物로 하지는 데 있었다. 石造·鐵筋콘크리트 建物로 한다면 고딕式이 學校建物の 風格에 맞을 것을 생각하여 朴東鎮은 그 樣式을 決定하고 構想하였다 한다. [···] 그[도서관] 設計는 [···] 吳天錫이 美國에서 다니었던 듀우크大學(Duke University)의 圖書館을 그의 앨범에서 보고 이것을 參考삼았다 한다. (『60년지』, 1965, pp.192 & 215; 밑줄 필자 강조)

普專 建築에서 仁村이 이상으로 한 대학은 주로 英國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였고, 安岩洞 교사(現 本館)는 미국의 듀크大學 建물을 참고했다고 한다. [···] 그[도서관] 설계는 [···] 吳天錫의 모교인 美國의 듀우크大學의 앨범에서 그 도서관을 보고 참고했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70년지』, 1975, pp.115 & 163; 밑줄 필자 강조)

仁村이 歐美各地를 돌아보는 동안 가장 力點을 둔 것은 教育施設이었다. 英國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佛蘭西의 소르본느, 獨逸의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체코의 프라하, 美國의 콜럼비아, 하버드, 예일 등 여러 大學에서 教育界 人士들을 만나는 동시에 施設을 무비 카메라에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 新築 本館의 設計는 朴東鎮이 맡았다. [···] 仁村은 歐美旅行 중에 찍어온 各國의 大學建物の 幻燈寫眞을 가지고 討論했고 [···] 普專 圖書館은 [···] 教授 吳天錫의 母校인 美國 듀크 大學의 圖書館을 앨범에서 보고 이것을 참고로 한 것이었다. (『인촌 김성수전』, 1976, pp.321, 346 & 367; 밑줄 필자 강조)

[표 1] 고려대학교 역사서 등에 보성전문학교 본관 및 도서관의 모델로 서술된 듀크대학교 건물

고려대학교 역사서 등	출판연도	보성전문 본관의 모델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
60년지	1965		듀크대 도서관
70년지	1975	듀크대 건물	듀크대 도서관
인촌 김성수전	1976		듀크대 도서관
90년지	1995	듀크대 건물	듀크대 도서관
100년사	2008	듀크대 건물	듀크대 도서관

요컨대, 지금까지의 문헌은 보성전문 도서관이 듀크대학교의 도서관을 모델로 했다고 일관되게 기술한다. 그러나 본관의 설계와 듀크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서술이 아무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데에 있고, 건축학계의 연구문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미국에서 Harvard, Yale, Duke대학과 영국에서 Oxford, Cambridge대학을 방문하였으며, 이들 대학의 캠퍼스 형태는 보성전문의 캠퍼스 계획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미국의 Duke 대학은 캠퍼스의 배치와 건물양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김성수가 1930년대 초에 이 학교를 방문하였으므로 이때에 이 마스터플랜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한, 1991, pp.135 & 163; 밑줄 필자 강조)

이 같은 이영한의 서술은 안창모(1997)에게 거의 그대로 옮겨지는데,<sup>17</sup>

17 “미국의 듀크대학은 캠퍼스의 배치와 건물 양식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성수는 1930년대 초에 이 학교를 방문하였으므로 이때에 이 마스터플랜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모(1997), pp.64 & 68.

이들은 모두 인촌의 듀크대학교 방문을 기정사실화한다. 그리고 개별 건물을 넘어서 캠퍼스 계획으로까지 영향 범위를 넓히며, 그러한 영향력이 인촌의 듀크 방문 시에 이미 거기서 있었을 거라 추정한다. 그래서 본관 설계 당시, 혹은 그 전부터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세워졌다는 인상마저 주는데, 문화재청의 리포트(『20세기 초 건축물 사진실측조사보고서』, 2000)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인촌이 듀크대학교를 방문했다는 원천 증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은 논리의 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도서관을 설계할 때에는 보성전문 관계자들이 듀크대학교 캠퍼스의 조감도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중심 건물과 도서관의 위치 관계에 대해 논의했을 개연성은 없지 않다고 하겠다.

### 3.2. 보성전문 도서관과 오천석의 「석탑야사」

그렇다면 『60년지』 이래 일관되게 서술되어온 듀크대학교와 보성전문 도서관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흥미롭게도 여기에는 듀크대에서 유학했다는 오천석(吳天錫, 1901~87) 교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도서관 설계에 참고한 듀크대의 앨범은 오천석의 졸업앨범으로 오독되기도 했다.<sup>18</sup>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먼저 (비록 본고의 핵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명확히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듀크대학교가 오천석의 모교라 불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가 1921년 도미하여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은 각각 코넬(1925), 노스웨스턴(1927), 컬럼비

18 拙稿, 「인촌 선생의 비디오카메라와 고대 석탑의 연원」, 『고대신문』 1629호(2009.11.23).

아(1931)였다. 따라서 그의 모교가 듀크대라는 것은 오류로 보인다.<sup>19</sup> 그렇다면 오천석과 듀크대학교 앨범은 어떤 관계일까? 이 질문을 포함한 보성전문과 듀크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오천석이 고려대학교 교수회 회보인 『高友會報』에 게재한 글 「石塔野史: 내가 아는 숨은 얘기」(1972.9.5)를 통해 대부분 풀리게 된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교육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오천석은 1932년 봄 보성전문에 임용되어 1935년까지 4년간 근무한다. 이 글에 따르면 도서관 설계를 준비 중이던 인촌이 오천석에게 미국 대학 가운데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문의했고, 마침 미국 여러 대학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던 오천석이 그 가운데 듀크대학교의 신축 도서관을 보고 추천했다. 그리고 인촌 역시 이에 만족하여 결국 듀크대 도서관을 본뜨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圖書館을 새로 짓기로 결정하고 設計를 구성하고 있던 仁村先生은 어느 날 나를 불러 [...] 미국 대학 중에서 우리가 본뜬만한 도서관 건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미국 여러 대학의 캐탈로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을 뒤적거리다가 미국 南部 北캐롤라이나州에 자리 잡고 있는 某大學校의 신축된 도서관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 이를 인촌선생에게 보여 드렸다. 선생은 이를 보고 滿足하여 그 모양의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오천석, 1972; 밑줄 필자 강조)

앞 절에서 검토한 문헌과는 달리 오천석의 글은 두 가지를 새롭게 알려

19 天園吳天錫博士教育人葬委員會, 『天園吳天錫先生 그 遺德을 追慕하며』(서울: 天園吳天錫博士教育人葬委員會, 1988) 및 대한민국학술원(www.nas.go.kr) 회원정보를 참조하시오. 오천석의 자제인 오정무와 필자의 전화 인터뷰(2009.11.23) 역시 이를 확인했다.

준다.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듀크대학교의 앨범이라기보다는 대학 카탈로그라는 것, 둘째는 듀크대의 도서관이 당시 '신축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 된 듀크대 건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케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1930년대 전반의 관점에서 '신축'이라 할 만한 '고딕양식의 도서관'이 바로 보성전문 도서관의 모델이니 말이다. 그리고 혹시 그 신축 도서관 사진을 담고 있는 듀크대의 카탈로그를 구한다면 대체적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이제는 듀크대학교의 건축을 살펴볼 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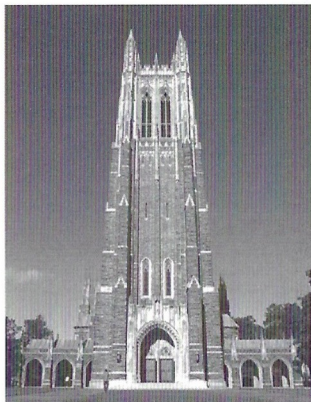
#### 4. 듀크대학교의 고딕 캠퍼스와 퍼킨스 도서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Durham)에 위치한 듀크대학교는 19세기 중반 설립된 트리니티 칼리지를 토대로 1924년 창립됐다. 2012년 기준 듀크대에는 1,700에이커(약 200만평)의 광범위한 토지에 150여 건물이 영역별로 군집되어 있고, 그 가운데 고전주의적 조지안양식의 동캠퍼스와 고딕양식의 서캠퍼스가 두드러진다. 결국 본고의 관심은 서캠퍼스로 모아진



[그림 11] 오천석, 「石塔野史: 내가 아는 숨은 얘기」, 『高友會報』 26호(1972.9.5)

다. 이곳은 트리니티 시기부터 조성된 동캠퍼스와 달리 1924년 듀크대 창립 이후 개발된 영역으로서 이 학교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사하는 곳이라 하겠다. 서캠퍼스 조성 당시 학교 관계자들은 미국의 여러 대학을 답사했고 특히 프린스턴과 시카고대학교에 큰 인상을 받아 '대학 고딕양식'을 채택하는데, 이는 전술했듯 중세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함의하는 학문적 전통과 연계된다.<sup>20</sup> 캠퍼스 전체 계획과 건물 설계는 필라델피아의 호러스 트럼바우어(Horace Trumbauer, 1868~1938) 건축사무소에서 맡았고, 파리 보자르에서 유학한 줄리안 프랜시스 아벨(Julian Francis Abele, 1881~1950)이 대부분의 실무를 진행했다고 전한다.<sup>21</sup>



[그림 12] 듀크대학교 채플, 1932: 서캠퍼스의 중심 건물 (필자 촬영)



[그림 13] 듀크대학교 서캠퍼스의 퍼킨스 도서관, 1930 (필자 촬영)

20 "The forested ridge designated as the site of the new West Campus made the Collegiate Gothic a natural choice [...] to suggest a kinship with the academic traditions of medieval Oxford and Cambridge." John M. Bryan (2000), pp.7 & 13.

21 듀크대학교 건축물의 역사와 캠퍼스에 관해서는 앞의 책(Bryan, 2000)을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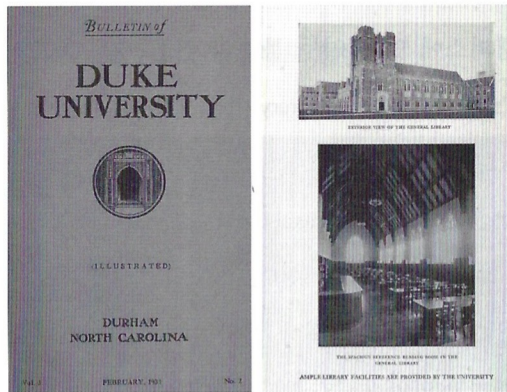
[그림 14] 듀크대학교 동캠퍼스의 릴리 도서관, 1927 (필자 촬영)

고딕의 서캠퍼스에 있는 열두 블록의 건물 가운데 도서관으로 명명된 것은 퍼킨스 도서관(Perkins Library)이 유일하며, 이것이 완공된 연대는 1930년으로서 1930년대 전반 오천석의 관점에서 '신축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 '종합도서관(General Library)'으로 불린 이 건물은 당시 여러 듀크 도서관들의 중심으로 역할 했다. 1931년 출판된 듀크대학교 자료에 따르면<sup>22</sup> 그때 듀크대에는 여성대학, 신학대학, 법학대학, 의학대학이 별도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캠퍼스의 여성대학 도서관은 현재의 릴리 도서관(Lilly Library, 1927)으로서 우아한 고전주의적 양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각 대학의 건물에 속해 있어 독립된 도서관 건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성전문이 본뜬 듀크대학교의 도서관은 퍼킨스 도서관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22 *Bulletin of Duke University*, Vol. 3, No. 2(February 1931), p.11; Benjamin Powell (ed.), *Handbook of the Duke University Libraries*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1931).

#### 4.1. 오천석의 듀크대학교 카탈로그

그러면 오천석이 가지고 있던 듀크대학교의 카탈로그는 무엇이며, 어떤 사진이 거기에 담겨 보성전문을 위한 참고가 됐을까? 오천석의 유품을 찾기 어렵다면<sup>23</sup> 듀크대의 자료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sup>24</sup> 당시 이 대학이 출판하던 '카탈로그'라 불릴 만한 책자로는 매년 7회 발행하는 학교 요람인 『Bulletin of Duke University』가 가장 타당해 보이며, 학부생 연감(yearbook)인 『The Chanticleer』 역시 거론할 수 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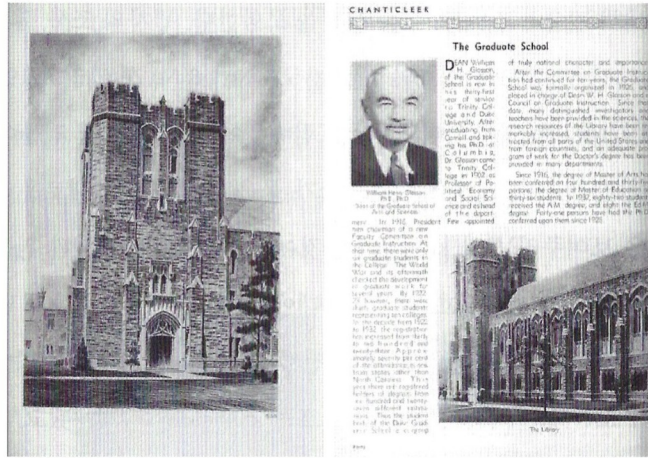
[그림 15] 『Bulletin of Duke University』 Vol.3, No.2(February 1931): 커버 페이지(왼쪽) 및 도서관 내외부 사진이 있는 페이지(오른쪽)

- 23 오천석의 자제 오정무와 필자의 전화 인터뷰(2009.11.23).
- 24 듀크대학교 아카이브의 에이미 맥도널드(Amy McDonald, amy.mcdonald@duke.edu)는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됐다.
- 25 매월 발행된 동문회보 『The Alumni Register of Duke University』는 종종 학교 사진을 신기도 했으나 대학 카탈로그로 보긴 힘들고, 학교의 주간 스케줄표인 『Duke University Calendar』의 경우는 1930년대 전반의 것을 조사해본 결과 사진이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 한편, 1931년에 출판된 32쪽 분량의 『Handbook of the Duke University Libraries』에는 서캠퍼스의 고딕 도서관과 동캠퍼스의 조지안 도서관 전경 사진이 각각 1매씩 있고, 마지막 네 쪽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이르는 서캠퍼스 도서관의 평면이 실렸다. 이것이 오천석이 가졌던 책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고딕 도서관 사진 한 장만으로 이목을 끌기에는 강렬함이 다소 떨어진다.

첫째, 『Bulletin』은 1929년 5월 처음 발행(Vol. 1, No. 1)된 이래 출판이 계속 되는데, 매 호수마다 개별 단과대학의 소개와 더불어 학과, 교수, 수강과목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간혹 사진을 포함한다. 필자의 조사 결과 학교의 건물 사진은 1931년 1월호와 2월호(Vol. 3, No. 1 & No. 2), 그리고 1932년 1월호(Vol. 4, No. 1)에 집중되어 있다. 트럼바우어에 의한 고딕 건물이 주로 1930년에 완공되어 그 해에 서캠퍼스가 문을 열었으므로 새로운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도서관 건물을 담고 있는 것은 1931년 2월호로서, 단과대에 국한된 다른 호수들과 달리 학교 전체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다. 전체 40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약 절반가량이 도판에 할애되어 25매에 이르는 건물 사진이 게재됐고, 여기에는 동캠퍼스와 서캠퍼스 각각의 조감도도 포함됐다. 도서관은 10쪽에 실린 외관과 실내 사진 각각 1매씩 모두 2매뿐이지만 오천석이 가졌던 카탈로그가 이것이라면 도서관 사진 이외에도 학생회관의 측면 사진이나 의과대학의 조감 사진 역시 큰 인상을 줬을 것이다. 특히 오천석이 의과대학을 소개하는 1931년 1월호와 1932년 1월호도 가졌다면 그 건물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 보성전문 도서관 탐상부의 디테일은 의과대학 건물 정면 중앙의 그것과 디테일에서 유사점이 있다.

둘째, 매년 300쪽 이상의 분량으로 발행된 『Chanticleer』는 그 상당 부분을 학과별, 동아리별 학생 명단과 사진으로 채웠었다는 면에서 '앨범'으로 불릴 여지가 있다. 오천석의 『石塔野史』 이전에 출판된 『60년지』가 듀크대학교 앨범을 참조했다고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 책자가 오천석의 카탈로그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1930년대 초의 이 연감은 여러 학교 건물들을 아름답게 묘사한 스케치와 사진을 다수 수록했고, 물론 도서관과 의과

대학의 것도 포함한다.



[그림 16] 듀크대학교 학부생 연감 『The Chanticleer』(1933): 도서관 스케치 및 사진이 있는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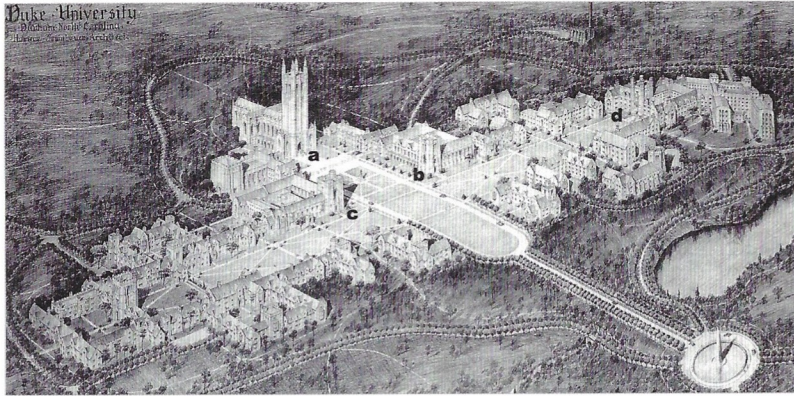
여기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오천석의 듀크대학교 카탈로그는 『Bulletin』일 가능성이 크며, 『Chanticleer』일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책자들을 통해 보성전문 관계자들이 접했을 듀크대 건물의 개략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듀크대학교 도서관(과 다른 고딕 건물들)이 1930년대 초 건립 후 다각도로 촬영되고 묘사됐으며, 그 중 일부가 어떤 식으로든 보성전문 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sup>26</sup>

26 듀크대학교 아카이브는 당시의 건물 사진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http://library.duke.edu/uarchive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2. 보성전문에 영감을 준 듀크대학교의 건축

오천석의 눈길을 끌고, 결국 인촌과 박동진을 통해 보성전문에 영감을 준 듀크대학교 퍼킨스 도서관은 어떤 건축적 특성을 가졌을까? 이 도서관이 1930년 완공되어 듀크대 도서관 가운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음은 이미 앞서 서술했다. 트럼바우어의 서캠퍼스 조감도(1931년 2월호 & 1932년 1월호 『Bulletin』 및 1934년도 『Chanticleer』에 게재)<sup>27</sup> 일단 도서관의 전체적 조망과 입지 조건을 잘 보여준다. 숲속 한 자락에 위치한 서캠퍼스는 십자형 오픈스페이스를 둘러싼 건물들로 구성되고, 단면 끝에 높이 솟은 대학 채플과 동남쪽 반대편 너머의 로터리가 중심축을 이룬다. 이를 가로지르는 장변축의 우측은 교육과 연구시설이, 그리고 좌측으로는 학생들의 주거와 생활공간이 수용된다. 두 축 교차부의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것이 바로 도서관 건물로서 건너편의 학생회관(The Union, 1930)을 마주하고 있다. 대학의 중심 건물(채플) 전면 우측에 도서관을 두고 도서관의 모서리에 탑을 세운 것은 보성전문의 배치 방법과 유사하며, 이후 고려대학교의 서관이 도서관과 비대칭 균형을 이루는 것 역시 듀크대학교의 경우와 닮았다. 캠퍼스 전체의 마스터플랜으로까지 해석을 확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나, 보성전문 관계자들이 이 조감도를 봤다면 본관과 도서관, 그리고 이후의 서관 배치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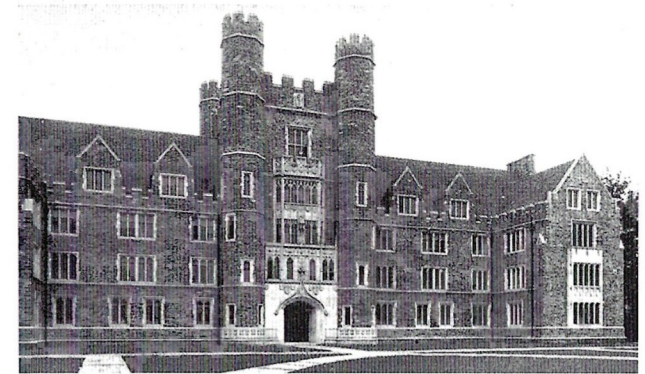
27 이 조감도는 『The Alumni Register of Duke University』 1932년 10월호에도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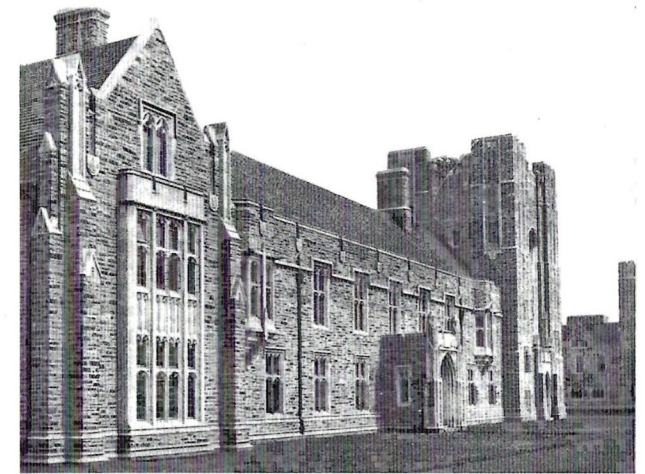
[그림 17] 듀크대학교 서캠퍼스 조감도: a. 채플; b. 도서관; c. 학생회관; d. 의과대학(알파벳 필자 삽입) - 다음에 출판됨: 『Bulletin of Duke University』, Vol.3, No.2 & Vol.4, No.1(February 1931 & January 1932); 『The Chanticleer』(1934).

이제 개별 건물을 살펴보자. 두 학교 도서관이 건물 모서리에 탑을 배치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탑의 네 코너에 튜렛을 디자인하고 상부에 여장을 둔 것 역시 유사하다. 이런 특징은 보성전문 도서관이 듀크대학교 도서관을 본뜬 것이라는 오천석의 발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그러나 퍼킨스 도서관의 디테일은 상당히 거칠고 둔탁하여 보성전문 도서관이 갖는 정교한 맛을 찾기 힘들다. 이 같은 디테일은 다른 참조점을 요할 수 있다. 그 유사성은 오히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캠퍼스 장축의 우측 단부를 마주하고 있는 의과대학 건물, 즉 현재의 데이비슨관(Davison Building, 1930)에서 발견된다. 이 건물 전면 중앙에 놓인 탑은 전술한 책자의 여러 곳에 사진과 스케치가 게재됐는데, 팔각형 튜렛의 비레나 튜렛에 나선형으로 배치된 개구부의 패턴 등이 보성전문 도서관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섬세하게 디자인된 돌출창은 보성전문 도서관 박공면의 것을 연상시킨다. 한편, 건물 모서리에 탑을 두고 이에 더해 날개 끝에 박공부를 계획한 보성전문 도서관의 형식은 퍼킨스 도서관이나

데이비슨관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형식은 듀크대학 도서관 건너편의 학생회관이 갖는 특성이다. 이 건물의 사진은 『Bulletin』 1931년 1, 2월호 모두에 크게 게재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림 18] 의과대학, 『Bulletin of Duke University』, Vol.3, No.1(January 1931)



[그림 19] 학생회관, 『Bulletin of Duke University』, Vol.3, No.1 & 2(January & February 1931)

요컨대 보성전문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피킨스 도서관을 모델로 했지만, 의과대학 건물과 학생회관 건물 역시 디테일과 전체 구성을 위해 참조됐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건축가 박동진이 모든 디자인 요소를 듀크대학교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분명 그것들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했으리라 생각된다. 듀크대학교 또한 프린스턴과 시카고 같은 이전의 고딕식 대학을 참조했고, 그 뿌리는 유럽의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5. 나가며

한국의 1세대 건축가 박동진의 설계에 따라 건축된 민족사학 보성전문 의 본관(1933~34)과 도서관(1935~37)은 역사적 가치로 인해 사적으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다. 고딕 석탑이라는 이 건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원을 추적하는 일은 우리의 근대기 건축사를 확장해가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성전문 본관과 도서관의 연원에 대한 언급, 특히 미국 듀크대학교 건축물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사실의 확대 재생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문헌이 실증적 고찰을 생략한 채 기존 것의 인용에만 기댔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며 문헌고찰, 건물답사, 아카이브조사와 같은 일차적 방법을 통해 보성전문 도서관의 연원을 탐구하고자 시도했다. 본관을 제외하고 도서관으로만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경우 듀크대학교 도서관이라는 특정 건물이 모델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는 본관에 대한 서술 역시 동반됐는데, 두 건

물이 건축적으로 같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본관의 연원에 대한 풍문 역시 도서관의 그것과 관계되어 온 까닭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 문헌이 담는 오류의 수정이라는 차원이다. 첫째, 『고려대학교 70년지』(1975) 이래의 고려대학교 역사서가 본관의 모델로 듀크대학교 건물을 언급한 것은 도서관의 모델과 혼동하며 생겨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10년 전에 출판된 『60년지』(1965) 및 비슷한 시기의 『인촌 김성수전』(1976)은 본관과 듀크대의 관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둘째, 이영한(1991) 이래 건축계의 연구가 듀크대학교의 영향을 본관 설계 이전의 보성전문 캠퍼스 배치계획으로까지 확대했는데, 이것 역시 논리의 비약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주변적 사항이긴 하나, 듀크대학교가 당시 보성전문 교수였던 오천석의 모교로 불릴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차원은 도서관의 모델과 관련한 적극적 의미의 연구 결과다. 첫째, 오천석의 『石塔野史』(1972)를 통해 명백해졌듯 보성전문 도서관이 듀크대학교 도서관을 모델로 삼게 한 매개체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학교 카탈로그의 사진이었다. 1930년대 전반 오천석이 소유했을 법한 듀크대 '카탈로그'로는 (특히 1931년 2월호의) 『Bulletin of Duke University』가 유력하며, 학생 연감인 『The Chanticleer』도 개연성이 있다. 둘째, 그 카탈로그에 사진이 게재된 듀크대 도서관은 1930년에 고딕양식의 서캠퍼스에 완공된 현재의 피킨스 도서관이 분명해 보인다. 셋째, 보성전문 도서관과 듀크의 피킨스 도서관은 모서리에 탑을 둔 점, 탑의 네 코너에 튜렛을 두고 상부를 여장으로 처리한 점 등 공통점이 여럿이다. 그리고 중심 건물과 도서관의 위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보성전문 도서관이

듀크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위 책자에 게재된 다른 건물들의 사진 역시 참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듀크의 의과대학 건물은 튜렛을 비롯한 디테일에서, 그리고 학생회관은 한 입면에 탐부와 박공부를 모두 갖는 구성에서 보성전문 도서관과 크게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전문 도서관은 이러한 선례의 참조를 바탕으로 건축가 박동진이 창작한 디자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성전문 고딕 석탑의 연원을 추적하며 만나게 된 듀크의 '대학 고딕양식'에서 우리의 근대기 건축이 뿌리내린 토양이 그리 알팍하지만은 앎을 또한 알게 된다. 듀크대학교의 족적이 다시금 우리를 프린스턴과 시카고로, 그리고 중세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까지 안내하기 때문이다. 보성전문 의 일례가 우리 건축사의 내러티브를 조금이라도 확장했다면 이 연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이상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겠다. 더불어 보성전문 고딕 석탑의 연원이 함의하는 학문의 신성한 가치에 대한 되새김 역시도 지금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